바이오산업 통합정보망 2003년 구축

산자부, 바이오 전략회의도 신설 … 수출 65억달러로 세계7위권 목표

정부는 2010년 국내 바이오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10%로 높이기 위해 대통령 주재의 전략회의를 신설하고 대덕밸리에 외국 바이오기술(BT)기업의 집적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산업자원부는 6월27일 무역클럽에서 신국환 장관 주재로 열린 [바이오산업 경쟁력강화 전략회의]에서 바이오산업 육성전략을 빌표했다.

산자부는 2010년 바이오산업을 국내시장 15조원, 수출 65억달러의 세계 7위권으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이 참여하는 대통령 주재 바이오전략회의를 신설하는 한편 전경련과 함께 [바이오산업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키로 했다.

산자부는 BT 산업화를 위해 우수 바이오 신기술 및 제품에 대한 인증사업으로 [BT마크제]를 도입하는 한편 바이오제품 전용의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고 2003년까지 바이오산업 통합정보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2001년 400억원 수준이던 바이오벤처 전용펀드를 2005년에 2000억원으로 늘리고 펀드 운용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하며 2010년까지 2500억원을 투입해 4개 분야 11개 기술을 개발키로 했다.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회의 참석자(35명)

소 속	직 위	성명
산업자원부	장 관	신 국 환
산업자원부	차관보	김 칠 두
생활산업국	국 장	김 상 열
수출과	과 장	김 동 선
산업정책과	과 장	김 경 식
생물화학산업과	과 장	김 순 철
보령제약(주)	회 장	김 승 호
(주)종근당	회 장	이 장 한
(주)녹십자	부회장	허 일 섭
제일제당(주)	사 장	김 주 형
(주)LGCI	부사장	양 흥 준
대한제당(주)	사 장	한 동 혁
(주)한국백신	사 장	김 경 옥
(주)마크로젠	사 장	서 정 선
(주)바이오니아	사 장	박 한 오
(주)씨트리	사 장	김 완 주
(주)이지바이오시스템	사 장	지 원 철
(주)유진사이언스	사 장	노 승 권

소 속	직 위	성명
코바이오텍(주)	사 장	류 대 환
(주)바이오인포메틱스	사 장	이 승 동
산업연구원	부원장	장 윤 종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 장	양 규 환
삼성종합기술원	원 장	손 욱
서울대학교	교 수	서 진 호
고려대학교	교 수	양 한 철
연세대학교	교 수	변 유 량
건국대학교	교 수	최 태 부
동국대학교	교 수	박 정 극
한국생물산업협회	회 장	조 완 규
한국바이오벤처협회	회 장	한 문 희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손 병 두
대한상공회의소	전 무	강 승 일
한국무역협회	전 무	한 영 수
한국경영자총협회	전 무	우 종 관
중소기업중앙회	상 무	김 남 정

주요 개발분야는 바이오물질로 단백질제품, 소분자의약품, 산업용효소, 바이오소재 4개, 응용기반기술로 약물전달체계, 실용화기반기술 2개, 바이오융합기술로 바이오칩, 생물정보학기술, 단백질체학기술 3개, 생체치료기술로 유전자치료기술, 세포치료기술 2개이다.

산자부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미국 샌디에이고에 해외BT지원센터를 설치하고 2002년부터 대덕밸리에 건립되는 바이오벤처타운에 연구개발(R&D)거점형 외국BT기업의 집적지를 조성키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BT 외국인전용단지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2005년까지 바이오집적지에 바이오기술 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국가기술자격인 생물공학기사 제도를 활성화하며 BT인력에 대한 병역특례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7/03>